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1)

/ 위원회 뉴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제2차 ADR연수 실시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

2015
09

Vol. 183

편지

미열이라도 있나

먼 데서

이마를 짚는 손

찰랑이는 심장의 말에 귀 기울이며

목덜미의 냉한을 흠치는

또 다른 손

산을 바라보는 눈에 얼비친

단풍든 저쪽 가을을 엿보느라

허공을 만지는

이쪽 공허를 들키고 말아

산 넘고 바다 건너온

그대 앞에 툭 떨어져

어여뻐 손 내미는 꽃 한 송이

스르륵 스르륵

돌아서는 마음속으로 스미는 이슬

서로 간 낮붉히다 손잡고

살맞대는

아, 그대 체온

따뜻하다.

김길웅

-
- 시 전문 월간지 '心象'으로 시 등단
 - '수필과비평'으로 수필 등단
 - 한국문인협회 · 동인脈 · 심상시인회 회원
 - 제주문인협회 회장 역임
 - 대한문학 대상 · 한국문인상 본상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예술 부문) 수상
 - 시집 '그때의 비 그때의 바람' 외, 수필집 '모색暮色 속으로' 외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
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린
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
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
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
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
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
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pacblog.kr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5 September Vol.183

04 역사 속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 (1)

06 문화가 산책 신화가 된 지휘자 '카라얀'

07 古典名句 성인지미成人之美,
불성인지악不成人之惡

08 신 동의보감 관절염

09 상담노트 알지 않을 권리

10 교육후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하루
- 인턴십프로그램을 마치며

11 지상중계 2015년 정기세미나

12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14 조정중재사례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9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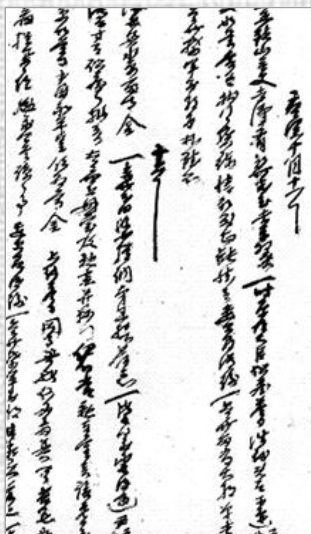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조보 (1)



〈원본 조보〉

1. 들어가며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으며,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언론을 정부보다 더 존중했던 그에게 후세의 사람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로 여겼던 태도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의 하나이다.

그런데 군주제 국가였던 조선시대에도 언론활동을 벌였던 신문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1883년에 발행하였던 「한성순보」를 떠올린다. 그러나 「한성순보」 이전에 신문의 틀을 갖춘 ‘조보’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조보는 조정의 소식 혹은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관보의 일종이다. “역사란 각 시대가 다음 시대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을 그 때마다 기록한 것이다.”라는 말처럼, 조선에서 발행된 ‘조보’ 역시 중요한 역사 기록이었다. 무엇보다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날마다 기록해서 배포한 문서였다는 점에서, 조보는 문자로 필사되어 배포된 최초의 공식 언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선 언론의 종아 ‘조보’

신문(新聞)의 한자 성어는 말 그대로 새롭게 듣는 것, 즉 신문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사실을 듣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일의 시사과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기록성(記錄性)을 지니고 있어 반복해서 볼 수 있다. 내용이 시사적일 뿐만 아니라 시의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정기성도 있다. 조보

의 주 독자층이 양반으로서, 민간인까지 확산되지 못한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문의 특성과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보는 기별·기별지(寄別紙)·조지(朝紙)·저보(邸報)·난보(爛報)·한경보(漢京報) 등 다양하게 불렸다. 조정의 소식 또는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란 뜻으로 오늘날의 관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별’ 또는 ‘기별지’로 통했는데, 소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기별이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입으로 혹은 글로 전달하였던 것, 즉 정보(Information)라는 의미로, 조보의 우리말 별칭인 것이다.

대체로 조정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지만, 임금의 동정 및 인사 내용 등 중요 사항이 모두 수록되었다. 요즘 신문의 종류가 대단히 많지만, 중앙 일간지든 지방 일간지든, 스포츠 신문이든 경제 전문지든 기본적으로 주요 정치 기사나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조보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관청과 개인의 별도 소장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각 도서관에 상당한 분량의 고문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이나, 개인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소장처나 소장자의 의지에 따라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 정치의 메카는 군주가 있는 자리였던 점에서 정치 현장의 생생한 사실을 수록한 조보는 그만큼 의미가 크고 상징적이다. 정국을 주도하는 지배층이나 재야 학자들까지도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조보였던 것이다. 그만큼 조보의 효용성은 매우 컸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하향식 기능만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수평적 전달과 일반 백성의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다.

3. 언제부터 발행되었을까?

조선은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해 왔고 그들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이미 티파오(Tipao:邸報)라는 필사 관보가 발행되어 통치 집단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다. 송나라와 명나라에서도 차오파오(Chao pao:朝報), 티파오 등이 발행되었다. 청나라 역시 칭파오(Ching Pao)라고 하는 공식 뉴스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사설신문사가 있었다.

음으로 양으로 중국과 교류했던 조선이 당나라 이래 중국에서 발행 하였던 조보를 보지 못했을 리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통치 체제의 강화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조보’라는 매체의 수용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찍부터 조보가 발행되었을 것이라는 첫 번째 단서이다.

조보의 기원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단서는 공식적인 국가 수송 체계를 통해서이다. 조선은 국가 명령 전달 체계인 역(驛) 제도를 운영했다. 역은 국가 명령의 전달, 관물의 수송, 사신 왕래에 따른 접대, 그리고 지방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규찰 등을 담당한 명령 전달 체제였다. 역의 주요 임무인 공문서의 전달은 곧 군주의 동정과 조정의 행정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변방의 긴급한 군사 정보 및 사신 왕래에 따른 접대 등도 담당했다. 조보 역시 이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보 발행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최초의 조보 관련 언급은 1418년(태조 18)의 분발(分發, 조보의 이칭)이라는 기사이다. 1508년(중종 3)에는 성희안(1461~1513)이 조보를 보았다는 기사가 있다. 1520년(중종 15)에는 의정부의 사록을 승정원에 출입시켜 조보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승정원에서 처결한 사항을 곧 바로 알 수 없어 국정을 파악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군주의 물음에 답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때 남곤(1471~1527)이 조보의 선례로 제시한 것은 고려의 제도였다. 고려에서 급사증이 중추원에 출입시키면서 왕명 출납 등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운용하자고 한 것이다. 즉 ‘옛날에는, ‘조보의 내용’, ‘정령의 출납’이라는 표현 등을 통해, 조선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에도 조보가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조보의 제작 과정

조선의 신문사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던 승정원이었다. 정종 2년에 독립기구가 된 승정원은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곳이다. 기자는 승정원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주서(정7품, 오늘날의 6급 상당 주사)였는데, 그 기능은 오늘 현재 청와대 비서실의 공보수석과 유사하다.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기자의 취사선택은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나 이익단체를 비판할 경우, 신문에 압력이 오는 경우와 동일하다. 기자의 취재 내용과 편집부의 편집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개연성이 상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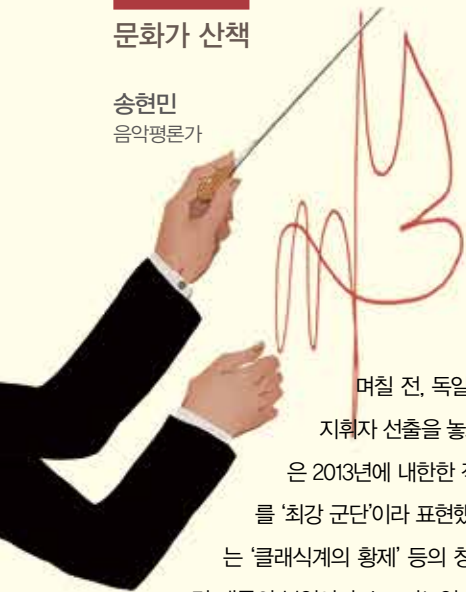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에 기사 삭제나, 정간, 폐간 등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주권을 빼앗긴 나라가 겪어야 했던 한계였다. 1980년 5월의 신문을 찾아보면,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통제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때는 권력이 무서워 할 말을 못했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있지만, 기자의 사명감과는 무관한 시대의 아픔이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비비며 받아보는 신문은 그저 종이 목치가 아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담긴 결정체이며, 배달하는 사람들의 땀이 담겨있다. 따라서 기사 그 자체에서 작성자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조보의 기사 역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조보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행되었다. 먼저 승정원에서 국가 통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취사선택하여 필사하는 곳으로 내려 보낸다. 주서는 발표된 내용을 받아 필사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된 소식은 각 관청이나 대신들이 보낸 서리(기별서리)들이 조보소로 와서 필사해 갔다. 서리들의 필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그날의 신문 발행은 끝나는 것이다. 승정원이 기사의 내용을 선별해서 결정하는 신문사 편집국의 역할을 했다면, 조보의 실제적인 제작은 조보소(기별청)에서 했다. 즉 발행한 곳과 인쇄한 곳이 달랐던 것이다.

기별서리에 의해 필사된 조보는 기별군사(寄別軍士)에 의해 배포되었다. 기별군사는 기별사령 또는 조보군사라고 불렀는데, 당상관과 각 관청에는 전속 기별군사 혹은 기별사령이 있었다. 기별군사는 오늘날 보급소에서 신문을 직접 수령하여 배달하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였다고 보면 된다(다음 호에 계속).





신화가 된 지휘자

카라얀

며칠 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차기 지휘자 선출을 놓고 유럽 전역이 떠들썩했다. 베를린 필은 2013년에 내한한 적이 있다. 당시 언론은 이 오케스트라를 ‘최강 군단’이라 표현했고, 지휘자 사이먼 래틀(1955~)에게는 ‘클래식계의 황제’ 등의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같은 달에 사이먼 래틀의 부인이자 소프라노인 막달레나 코제나(1973~)까지 내한했는데, 그녀에게는 ‘클래식계의 퍼스트레이디’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으니 베를린 필의 위력과 권력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클래식에 흥미가 있는 이들에게 베를린 필이라고 하면 34년(1955~1989) 동안 이 악단을 이끈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을 금세 떠올릴 것이다. 이번 글은 20세기 지휘 역사의 신화가 된 카라얀과 그가 열광했던 음반·영상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공익을 위한 것인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20세기가 시작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태어나 끝나기 11년 전에 죽은 그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20세기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단순히 ‘지휘자’라고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든 지휘는 기본. 오페라에서는 손수 연출을 맡는가 하면, 텔레몬디알사를 설립하여 개인 음반을 제작했고, 스튜디오에서는 녹음과 편집에 직접 손을 대기도 했다. 196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과 쿤쿠르를 설립하여 일본의 오자와 세이지(1935~), 러시아의 발레리 게르기예프(1953~) 등의 후배 지휘자를 양성했다. 그가 죽고 없는 지금, 음반과 영상물로 박제된 그 광대한 활동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언제라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신화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레코딩에 몰두한 목적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음악의 향수권을 넓혀 ‘음악의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라얀에 관한 수많은 평전을 읽다보면 그의 이런 의지와 행동은 ‘공익’을 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스타플레이어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는 심지어 베를린 필에 대해 “난 나 자신에게 더 할 수 없이 지극한 사랑과 수고를 들여 이 악기를 장만한 거야”라고 말했다가 “카라얀은 공공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세금으로 혼자 가지고 즐길 개인 소장용 악기를 장만했다고 공연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음반 녹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든다

카라얀이 가장 매달렸던 것은 음반과 영상물 제작이었다. 클래식은 아날로그의 예술이지만 이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음반에 ‘보존’하고 ‘구현’하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카라얀은 이를 제대로 간파했던 지휘자였다.

그는 특히 새로운 녹음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직접 음향 조정간을 잡는 등 프로듀서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예사일. 1981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일본 소니사의 모리타 아키오 회장을 초청해 CD(Compact Disc)의 공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녹음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는 녹음 양에 있어서도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음반을 제작했다. 대중으로부터 은둔하여 자신의 음악에만 몰두하길 좋아하던 전 시대의 지휘자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 결과 누구도 넘보기 힘든 아성을 쌓았다. LP(Long Playing), CD(Compact Disc), LD(Laser Disc)로 매체가 바뀌는 데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고 앞서 나갔다.

▶ 영화배우 못지않은 화면 속 자기 관리

지휘자들 중에 영상 매체의 힘을 알아챈 것도 그가 최초일 것이다. 자신의 지휘 모습을 담은 첫 필름을 1965년에 연출가 앙리-조르주 클루조(1907~1977)와 함께 촬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은 깨지고 투자사의 돈줄도 말라버린다. 하지만 카라얀은 이를 계기로 영상문화에 본격적

(사진 출처_카라얀 공식 홈페이지 www.karajan.org)



으로 눈뜨게 된다. 베를린 필의 사령탑에 있는 34년 동안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들을 CD는 물론 뮤직 비디오로 남겼다. 1965년에 자신이 설립한 영화 제작사 코스모텔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성공한다. 촬영 각도나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과 횡수까지도 카라얀이 미리 결정했다. 카메라에 '맛'들린 그는 이미지 관리에도 철저했다. 그가 지휘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을 때는 특정 각도에서만 찍게 했고, 언론에 공개되는 사진은 카라얀이 직접 고른 것이라야만 했다. 오십대 초반까지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을 고수했던 카라얀은 그 이후부터 미용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그는 지휘를 끝내고 지휘자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빗부터 찾았다고 한다.

그가 설립한 코스모텔사는 각종 음악 다큐멘터리와 영화 제작에 손을 댔다. '오텔로', '나비부인', '라보엠', '카르멘', '장미의 기사' 등 카라얀만의 장기이자 역사에 명작으로 남은 오페라를 영화화했으나 실패해 이 필름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카라얀은 이에 굴하지 않고 텔레몬디아사를 설립, LD에 자신의 음악을 담았다. 영상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올 것을 예감한 것이다.

▶ 그의 음악과 영상은 여전히 건재한다

베를린 필이 1955년에 지휘자 세르주 체리비다케(1912~1996)를 버리고 카라얀을 택한 이유도 이러한 상품 가치에 있었다. 베를린 필은 약 35년간 카라얀 인생의 절정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준 동시에, 그의 상품 가치를 철저히 이용해 세계 최고의 악단으로 군림하는 이득도 챙긴 셈이다.

카라얀의 신화는 900장에 달하는 녹음과 1억 1천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밀리언셀러를 100번 이상 기록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요자 저변 확대를 통한 음반 시장의 성장, 새로운 음악 매체의 개발, 20세기형 새로운 지휘자의 위상 정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는 그가 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카라얀은 죽어서도 매년 18억 원씩 벌어들이는 지휘자이다.

'20세기 음악의 황제', '음악의 테크노크라트', '20세기 최고의 상업주의 예술가', '유럽의 음악 장관'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지휘자. 그는 지금도 살아 있다. 그가 남긴 음반을 들으며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사람도 많다. 필자 또한 누군가가 클래식을 공부하고 싶다고 물어오면 "카라얀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클래식을 즐기고 싶다고 물어보면 "카라얀을 즐겨라"라고 답한다. 신화가 된 그의 영상과 음악은 KBS 1FM의 여러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도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성인지미 成人之美, 불성인지악 不成人之惡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혼자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무궁한 재화를 제공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양상은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꽤 다르다. 크게 보면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마이너스 형의 경쟁이 있고, 상대를 인정하고서 '나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키우는 플러스 형의 경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형의 경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서로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된 마이너스 형의 경쟁 양상을 많이 보인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파벌이 작용한다거나 직장의 승진과 채용에서 학벌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거나 기업의 거래에서 사소한 약점을 들추어내서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논어 연언』을 보면 공자는 군자의 품성으로 "주위 사람의 장점을 이루어주고, 단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군자성인지미君子成人之美, 불성인지악不成人之惡). 이 구절을 보고 대뜸 "현실에 저런 군자가 어디에 있어. 저러니 공자의 말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야!"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경쟁을 신성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경쟁은 부족한 기회와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전지전능한 길이 결코 아니다. 지독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상대를 깎아내리는 마이너스 형의 경쟁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가혹해지는 것이다. 주위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공로를 칭찬하다보면, '나'는 나에게 없지만 상대에게 있는 길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숙된 상태로 나아가려면 주위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를 살피게 하는 플러스 형의 경쟁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관절염

대다수 시골 어르신들의 공통된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관절염이다. 어깨, 무릎, 허리, 팔다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평생 일을 많이 하셨기에 자연히 관절이 퇴행되고 노화가 돼 통증이 생기고 변형이 오게 된다. 그런데 관절염은 가만히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찾아온다. 관절의 노화가 결국 관절염을 일으키게 된다.

‘그럼 뭘 먹지?’ 관절이 약해진 사람들은 관절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한다. 대개는 뼈를 고아먹는데, 소뼈도 삶고 염소 뼈도 삶고 사슴뼈를 삶기도 한다. 골다공증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곰탕을 한 솥 끓여서 매일 매일 먹는 사람도 있고, 끼니마다 우유와 요거트, 멸치를 섭취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우슬(牛膝)이란 약초가 좋다는 말을 듣고 우슬을 뜯으러 산에 다니기도 한다.

관절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 강함이 없으면 부러지게 되지만, 부드러움이 없으면 붓고 뻣뻣하게 되고 뭉개 되며 통증이 생긴다. 관절 역시 외유내강(外柔內剛)해야 한다. 모든 관절은 부드러우면서 강함이 있어야 한다.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된다. 또한 관절을 충분히 부드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며, 마사지와 냉온열 팩으로 풀어줘야 한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할 때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격한 운동이나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이상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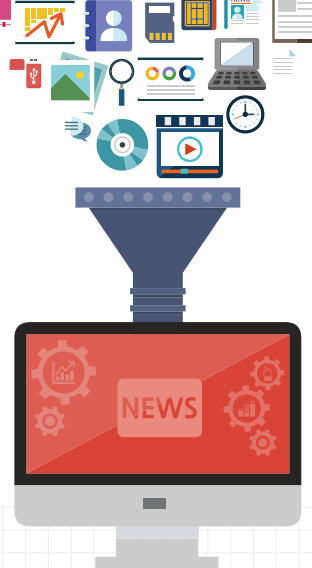
관절의 부드러움을 주는 음식이 있다. 그것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다. 채소와 과일은 관절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주고 치료해주며,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 카레, 생강, 각종 씨앗, 채리, 파인애플, 사과식초, 올리브, 계피와 다양한 녹황색 채소들은 관절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치료한다. 계절에 따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게 되면,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진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고등어나 꽂치, 참치, 연어 같은 생선을 먹게 되면 관절을 좋게 만들 수 있다. 달걀을 삶았을 때 껍질에 붙어 있는 달걀의 흰 막(Eggshell Membrane) 부위에도 관절을 좋게 하는 물질이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드시라고 한다. 돼지족발의 말랑말랑한 젤라틴도 관절을 튼튼하게 한다.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의 상태로 인해 발생한다. 인체의 면역 기능 이상으로 관절염이 올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부교감 신경의 부조화 기전, 혹은 만성적 체력적 저하 기전으로도 관절염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음식의 잘못된 섭취로 인해서 관절염이 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이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각종 성인병과 각종 관절 질환을 일으키는 문제가 초래된다. 나이가 들수록 설탕을 줄여야 관절이 튼튼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관절이 좋지 않을 때는 침, 뜸 시술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약침이나 봉침(벌침)을 치료에 응용하기도 한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스티커뜸을 뜨거나 파라핀 욕조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절 치료에 있어서 침 치료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다. 침 치료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관절 질환의 치료와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분들은 침 치료를 공포스러워해 꺼리기도 하지만, 침은 인체의 기(氣)의 흐름을 좋게 하며 통증을 멎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관절이 약해져 자주 시리고 통증이 오는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셔서 검사와 상담을 받길 권해드린다.



알지 않을 권리



수화기 저편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한 듯하지만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 만했다.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 모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다. 창졸간에 남편을 잃은 것도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큰 충격인데 그녀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각종 언론에서 그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 유족을 상대로 한 끈질긴 취재요청도 못 건딜 노릇이었지만, 인터넷 공간에 시시각각으로 남편의 인적사항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살해당한 경위 및 장소와 혈흔을 찍은 사진, 살해의 방법 등등이 세세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매일같이 새록새록 새로운 슬픔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얘기해놓았는데, 보도 때문에 아빠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애써 담담하게 얘기하던 그녀는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 심정이 절절히 공감되어 울컥 올라오는 울음을 참느라 갖은 애를 다 써야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사건·사고, 특히 범죄보도의 주인공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되었다. 사건이 벌어지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은 병원, 영안실 아니면 피해자의 집이다. 아마도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보다 생생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수법이 잔인하거나 세간의 주목을 끌 법한 사건이면 더욱 그러하고, 안 그래도 끔찍한 범죄로 인해 황망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언론으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시달려야 하며 그러는 동안 그들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진다.

지난 2012년에 나주에서 발생한 유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는, 이러한 범죄보도 관행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

처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나주로 우르르 몰려간 기자들은 앞 다투어 피해아동 부모의 월 수입액, 주거지 위치, 집 전경과 내부 구조, 심지어는 피해아동이 그렸던 그림일기며 피해자의 상처부위까지 상세하게 공개했다. 결국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법원은 공익적 차원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언론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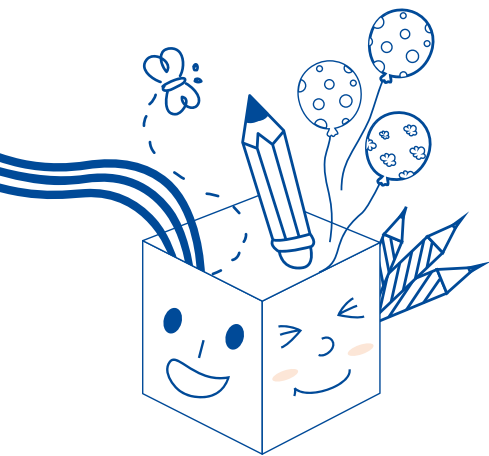
하지만 뒤늦은 금전적 보상이 나주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판결을 소개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이 그녀의 피명든 가슴에 터럭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나조차도 미심쩍어 주저주저하면서, 최근에 이런 판결도 있었노라고 말해주자 그녀는 한껏 밝아진 목소리로 “그렇죠? 아무리 언론이라고 그렇게 보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 생각이 맞는 거죠?”라고 내게 확인을 한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다. 범죄보도는 범죄가 왜 발생했는지, 수사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피해회복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의 공적 영역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영동하게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세세하게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보도하는 것은 구태의연하면서도 부당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니 그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슬픔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소 무디고 희미해지리라. 하지만 인터넷 공간 어디엔가 영원히 남아 시시각각 그들을 날카롭게 찌를 기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 것이다. 알권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알기 싫은 것은 알지 않을 권리 아닐까.



언론중재 위원회에서의 하루

— 인턴십프로그램을
마치며 —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필자를 비롯해 언론에 관심이 있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프로그램(현 청소년언론중재스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턴십프로그램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인데, 우리가 참여한 것은 종일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6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은 모두 잘 참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강사님께서 ‘언론의 기본 이해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강사님께서 플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인 ‘프로퍼블리카’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셨는데, 프로퍼블리카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사로서 독자들의 신뢰를 추구했다고 한다. 이 언론사는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무료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서, 이런 기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셨다.

인턴십프로그램의 기본 강의를 들은 후 모의조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6명의 학생들이 대표로 ‘치맥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조정인, 언론사, 신청인 역할을 맡아 조정심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며 모의조정을 이끌었다.

내가 가장 재밌었던 프로그램은 기사심의 체험이었다. 모의 시정권고 실습으로 문제가 있는 기사를 찾아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직접 써보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과정이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보며 잘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는 도전 골든벨도 해보고, 심리실 견학도 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님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언론과 인격권 보호, 언론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언론인에 대한 꿈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력, 올바르게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춘 훌륭한 언론인이 되고 싶다.



〈2015년 정기세미나〉

“인격권 침해 기사와 그 펌글 및 댓글에 대해 삭제청구권 도입해야”

— 언론중재위, 세미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8월 20일, 21일 양일 동안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행 10주년을 맞는 언론중재제도도 디지털시대의 미디어환경 변화에 알맞도록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현재 언론중재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설사 오보에 대한 정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문제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 여전히 존속하는 한, 피해자의 인격권은 계속해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상의 오보나 이를 퍼 나른 글에 대해 삭제청구권이 나 접근차단권을 언론중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구분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사삭제’를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를 위한 청구권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기사삭제의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 언론중재제도의 관할은 전통적인 2가지 원칙, ‘언론기관’의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어 있었다”면서, “우선적으로 이 같은 고전적 틀을 깨야 하며, 나아가 언론중재의 관할 범위와 언론 보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색차단청구권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로봇이 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포스트휴먼 시대의 언론중재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는 언론



의 자유,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특히 공직자, 공적인 인물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정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은 “침해적 정보로 인한 피해의 확산은 LTE급인데 반해 피해구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언론조정 대상을 보도에 국한하지 말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장로

에 관계없이 폭넓게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언론중재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 중에는 고승욱 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이 “언론 현장에서 기사삭제 요청을 받을 때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며 언론중재위가 기사삭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용상 위원장은 이날 행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기사삭

제청구권은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기사가 허위이지만 하면 보도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삭제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언론중재위가 기사와 함께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피해자 편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박성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언론사, 포털 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학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경승 교수



구분권 소장



김경환 변호사



김동규 교수



유봉석 센터장



윤성옥 교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제2차 ADR연수 실시

– 박용상 위원장 ‘사이버페이스에서 인격권 법리의 적용’ 특강



박용상 위원장은 8월 19일 위원회 예비법조인 ADR연수에 참가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3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페이스에서 인격권 법리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박 위원장은 특강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의 주요 판시 내용과 의미, 그리

고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환경 변화에 걸맞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쟁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의 제2차 예비법조인 ADR연수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2주간의 연수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장의 특강을 비롯해 조정 이론 및 실습, 심리참관 등을 했다.

연수 마지막 날인 8월 21일에는 연수를 마무리하는 모의토론회를 열고 조정사례별 쟁점 사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수영 위원(서울4부), 배영곤 위원(서울6부), 김수일 중재부장(서울8부), 김동규 위원(서울8부)이 종합 강평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운영

위원회는 8월 29일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기초단체장 1곳을 비롯

해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 등 24곳에서 치러질 선거와 관련한 기사 심의를 하게 되며, 선거일(10월 28일) 이후 30일인 11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원연수 지역 확대 실시



위원회가 서울에서 실시하던 교원연수를 부산과 광주 등 지역에도 확대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부산에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광주에서 각각 초·중고 교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ADR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교원연수는 대체적 분쟁해결 ADR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의 강의와 함께 변호사와 풀어보는 학교갈등 사례, 학교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대응방법, 설득기법, 조정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가을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가을호(통권 16호)가 9월 1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당사자의 심리적 저항과 조정인의 설득 전략’, ‘갈등을 증폭시키는 성격장애의 유형과 대응방안’,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 나타난 소통의 지혜’,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 전과정과 반추’ 등 설득과 수사기법에 관한 다양한 글이 수록되

어 있다. 위 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위원동정
—
COMMISSIONERS

신임 중재위원 49명 위촉

9월 1일자로 49명의 중재위원이 위촉됐다. 중재위원은 언론중재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중재부	성명	현직
서울제1중재부	김용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홍은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서울제2중재부	강태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희영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박인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허은강	변호사
서울제4중재부	이태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경록	(전)연합뉴스 출판국장
	도성진	(전)중앙일보 편집위원실장
	양인석	변호사
서울제5중재부	홍중표	변호사
	성기준	(전)연합뉴스 상무이사
서울제6중재부	손관승	(전)MBC 대표이사 사장
서울제7중재부	김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세	한국체육언론인회 부회장
	안승국	변호사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제8중재부	이혁주	(전)조선일보 마케팅이사
	이종탁	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부산중재부	김홍일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종명	(전)부산일보 주필
	황지영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강경철	변호사
대구중재부	임상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상식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창학	변호사

중재부	성명	현직
광주중재부	이창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동수	(전)광주일보 논설고문
	박재우	변호사
대전중재부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교순	변호사
경기중재부	이근수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정화	변호사
강원중재부	이주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성기	(전)강원일보 상무이사
	이관열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효정	변호사
충북중재부	방승만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영일	(전)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김준희	변호사
전북중재부	김재금	(전)전북일보 주필
	김봉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남중재부	박민수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민말순	창원YMCA 이사장
	임영수	변호사
	이영동	(전)경남신문 상무이사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제주중재부	오상훈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문원	변호사

언론중재아카데미, '서울학생배움터' 헌판 수여받아

위원회 언론중재아카데미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서울학생배움터 헌판을 수여받았다.

언론중재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방학 때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언론중재스쿨'(구 인턴십프로그램)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진행해왔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헌판을 증정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지원 등을 위해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기존 3시간 표준 프로그램 외에 6시간 종일 프로그램도 개설해 월 1회 운영

할 예정이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과정은 인격권 보호 및 언론의 자유·책임에 관한 강의를 비롯해 모의조정 실습, 기사심의회험, 위원회 및 언론사 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수증을 전달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 보도, 반론 및 조 건부 추후보도로 합의

A신문과 B신문은 모 슬레이트 철거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청인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장 슬레이트 철거업체 선정을 위해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견적서가 조작되어 결국 선정에 실패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 과정에 부 정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면사무소는 슬레이트 철거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선정했고, 해당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해 편파보도를 했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당시 공사현장 토목기사가 자신이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고 업체와 협의해 견적서를 수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신청인 면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신청인 면사무소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반론을 보도하고 추후 신청인 면사무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밝혀질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 사실을 재차 보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토론 프로그램 패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D방송은 정치평론가 등의 패널이 출연해 의견을 개진하는 뉴스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던 한 대형 기업이 IMF 시절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따르지 않고 분식회계와 자금횡령 등을 일삼아 해체에 이르게 됐으며, 신청인의 법정구속도 기업이 해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평론가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을 따르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정부 지시에 따른 뒤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원인이 돼 기업이 해체됐고, 신청인의 법정구속과 기업 해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부 출연진 발언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과연 전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패널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마찬가지로 기업 해체 원인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반론으로 다루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다. 양 당사자가 중재부 권유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도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조정

C인터넷 매체는 보조출연기획사인 신청인 회사가 보조출연자에게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사보다 촬영시간을 적게 기록하여 출연료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단협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모든 출연자에게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하고 있고 수수료는 노사 단협에서 정한 요율을 공제하고 있으며, 촬영현장 상황에 따라 기획사와 제작사가 기록한 촬영시간이 상이할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단협 미이행에 따른 노조의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수수료 요율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하고, 조정대상기사에 신청인 회사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출연자별 급여명세서 제공을 비롯한 신청인 회사의 보조출연자 대우에 관한 사항 및 노사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신청인 회사의 입장이 미흡하게 반영되어, 독자들이 신청인 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를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의혹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E신문은 신청인이 F종교 교인이란 의혹을 받아 모 지방자치단체 홍보대사직을 사퇴했고, 현재 신청인이 이사장으로 있다는 단체 및 서예전시관도 실체가 없는 등 기타 경력에도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F종교의 교인이 아니고, 현재 작품 특성 상 자택에서 단체 및 서예전시관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F종교 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였으나 단체의 사무실 및 서예전시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에는 신청인이 F종교 교인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에 단체 및 전시관의 주소를 고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반론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전기홍-**

비록 페이지수는 적지만 알차고 훌륭한 이야기가 많아서 직원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이번 호에도 주옥같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중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건강한 여름을 위한 전라북도 보양식 열전'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예로부터 전라도 사람들은 식도락의 본향이라 할 만큼 좋은 음식을 많이 해먹는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고창 풍천장어, 남원 흙돼지 허브 삼겹살, 전주 민어탕...등등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고 생각만 해도 저절로 군침이 도네요. 전라북도 보양식 음식점을 꼭 찾아서 몸보신과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해봅니다. 다음 호는 벌써 가을의 시작 9월호이네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  사람」을 통해 가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최남이-

특별기고 '언론과 언론 아닌 것 사이'를 읽고 최근 들어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은 아니며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 잡지, 뉴스통신, IPTV 등을 제외하면 언론의 지위를 받지 못하며 언론중재법상의 언론도 아니게 규정되어 단지 정보로 분류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종 언론매체들이 등장해도 모두가 다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만큼 잘 파악하고 알아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언론과 언론 아닌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 책임소재와 법적분쟁이 줄어들리라 봅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개설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종일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언론중재스쿨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심도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표준 프로그램(3시간)과 더불어 종일 프로그램(6시간)을 신설, 운영합니다.

PROGRAM

- 0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 02 언론분쟁 사례 소개
- 03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 04 모의조정 실습, 기사심의 체험, 도전골든벨
- 05 위원회 심리실, 언론사 등 견학

- 대 상 : 중학생, 고등학생
- 기 간 : 월1회
- 시 간 : 6시간
- 장 소 : 위원회 강의실
- 비 용 : 무료
- 신청방법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www.pac.or.kr)
- 문 의 : 교육운영팀 (02-397-3092~5)

※ 프로그램 내용은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참가한 학생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